

1. 찬양대 사역 안내

새 지휘자가 부임할 때까지 주일2부예배 찬양대 사역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신년 특별새벽예배 전일 참석자 (이름 가나다 순)

신재희, 안정희, 윤미숙, 이영희, 이용필, 홍정임, 홍현근

3. 2022년 성경읽기표 제출자 (이름 가나다 순)

박정순, 박혜덕, 박황래, 성익제, 신숙자, 안정희, 이미자, 전진홍, 한춘화

4. 순모임: 오늘 오후 1시

5. 예배 변경 안내

2월 첫째주부터 주일1부예배가 EM(영어부) 예배로 변경됩니다. 금요찬양예배는 1월 27일까지 드립니다.

6. 제직헌신예배: 1/27(금) 저녁 7시 50분

1월 교회 사역 일정

29(주): Sagar Mekwan 강도사 목사안수예배 (오후 3시)

1월 주일예배 [두려움을 극복하라]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1/8 두려움 대신 보호하심 (로마서 8:28-39)
- ② 1/15 두려움 대신 사랑 (요한일서 3:13-18)
- ③ 1/22 두려움 대신 용기 (마태복음 14:22-33)
- ④ 1/29 두려움 대신 기쁨 (스바냐 3:9-20)

지난주 (1월 8일) 헌금 통계 (\$2,284.00)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

2부 예배

예배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 영 광 송 “송축해 내 영혼”	경배찬양
● 사죄은총	● 영 광 송 “송축해 내 영혼”
● 감사찬송 새찬송가 23장	● 사도신경
● 교 독 문 3번 [시편 4편]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 사도신경	교회소식
봉헌기도	성경봉독 요한일서 3:13-18
교회소식	찬 양 대
성경봉독 요한일서 3:13-18	봉헌기도
말씀강해	말씀강해
“두려움 대신 사랑”	“두려움 대신 사랑”
● 결 단 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 결 단 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 축 도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요한복음 시리즈 (5) “실로암” (요한복음 9:1-12)

서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

1.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1)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이지만, 그 중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랑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2) 올 한해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동기가 있을 때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2)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구나’, ‘진실한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구나’ 하고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1)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행하라!

나눔 질문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것은 결국

그가 미움과 증오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참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오늘 섬기거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정리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형식적인 말에서 벗어나 필요를 공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2023년 한 해, 행함으로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